

BNK구원투수 김지완, 실적방어 빛났다... 순익 23% ↑

1분기 순익 2073억 올려
올해부터 실적 상승 곡선
부산·경남銀 순익 2018억

BNK금융그룹 '김지완 호(號)'가 순항 중이다. 지난해 선제적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쌓은 만큼 올해부터는 실적 상승 곡선을 타는 분위기다.

BNK금융은 2일 실적 발표를 통해 2018년 1분기 총 당기순이익(지배지분) 2073억원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683억원) 대비 23.2%(39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81% (267억원) 증가한 5820억원, 수수료 부문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17% (126억원) 증가한 558억원으로 나타났다.

1분기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대출채권 매각의 증가로 기타비이자 부문 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87억원 늘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핵심지원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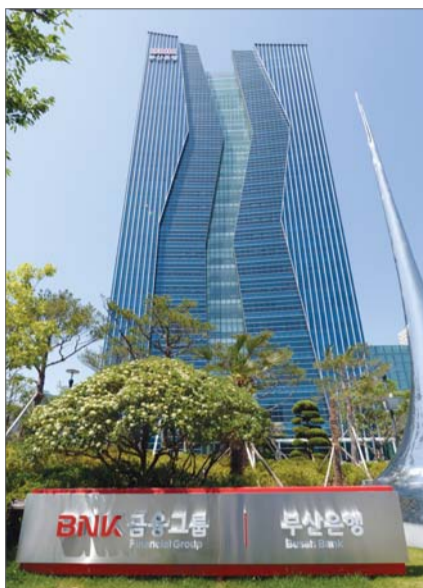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예금 증가와 소매대출 중심의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의 결과로 분기중 NIM(순이자마진)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bp(1bp=0.01%포인트), 5bp 상승한 2.37%와 2.25%를 기록했다.

계열사별로 보면 1분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순이익은 각각 1353억원, 665억원이다. BNK캐피탈은 183억원, BNK투자증권 62억원, BNK저축은행 46억원 등

비은행 계열사들도 양호한 이익 성장세를 나타냈다.

BNK금융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90%,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1.52%로 동종 업계 최상위 수준을 보였다. 판매관리비용률(CIR)도 지속적인 비용감축 노력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0.97% 개선된 41.94%를 기록하는 등 그룹의 수익구조가 큰 폭 개선됐다.



BNK금융그룹 전경.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안정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노력 등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64%포인트, 0.24%포인트 상승한 13.32%와 9.59%를 달성했다. 현재

추진 중인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시 향후 추가적인 비율 상승도 예상된다.

그룹 연결총자산은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을 통해 전년 말 대비 1.71%(1조 8315억원) 증가한 109조 2487억원을 기록했다.

BNK금융지주 명형국 그룹전략재무총괄 부문장은 "지역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자산의 견조한 성장과 안정적인 비용관리로 양호한 분기 순이익을 시현하게 됐다"라며 "이러한 실적 흐름이 연중 지속될 수 있도록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 및 적극적인 비용절감 노력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BNK금융그룹은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도 경영계획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함양주 KEB하나은행장(왼쪽에서 다섯번째), 김진양 북바이북 대표(왼쪽에서 네번째) 등 오픈식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이 축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컬처뱅크 2호점' 광화문에 오픈

KEB하나은행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컬처뱅크 2호점'을 오피스 밀집 지역인 광화문에 '힐링서점' 컨셉으로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책과 힐링을 테마로 한 '컬처뱅크' 광화문역지점은 공예를 테마로 작년 12월 오픈한 방래서래지점에 이은 KEB하나은행 컬처뱅크 프로젝트의 두 번째 결과물로서 '책맥(책과 맥주)'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독립 서점계의 실력과 '북바이북'과의 협업을 통해 은행과 서점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탄생했다.

'컬처뱅크' 광화문역지점은 직장인이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주변 직장인들이 은행 영업시간 이후와 주말에 언제든지 방문해 한 잔의 맥주와 책으로 챗바퀴 갈

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제공한다.

또한 대형서점에서는 시도하기 힘든 저자와 독자와의 소규모 만남을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연중 활발하게 이뤄지는 신개념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광화문 지역의 문화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날 열린 오픈식에는 책과 힐링을 테마로 한 컬처뱅크의 특성을 살려 주요 내빈들의 방문 축하 메시지를 책자 형태로 만들어 'KEB하나은행 컬처뱅크 북'으로 지점에 비치하는 등 기존 은행의 오픈식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KEB하나은행 함양주 행장은 "컬처뱅크는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찾아와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다"고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 kmh0

NH농협은행

e사장님 대출 신규 이벤트

NH농협은행은 다음달 29일까지 NH e사장님대출 가입고객을 위해 '대출상품 가입하GO! 주유쿠폰 받GO!'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농협은행에서 지난해 9월 출시한 비대면 개인사업자대출인 'NH e사장님 신용대출'이나 'NH e사장님 보증서대출'을 이벤트 기간 내에 500만원 이상 가입(대출금 수취)한 고객이 대

상이다. 상품서비스 안내에 동의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GS칼텍스 모바일 주유쿠폰(3만원)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당첨자는 7월 첫째 주에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NH e사장님신용대출'은 사업기간 1년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농협은행에 가맹점계좌를 보유하고 신용카드 대출대금이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일시상환의 경우 1년, 분할상환의 경우 거치기간 없이 5년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정교한 신용평가 모델, 개인신용대출만 취급

P2P 금융의 강자

⑤ 렌딧

다수채권 투자 건수 630만건
연체율 1.24%·부실률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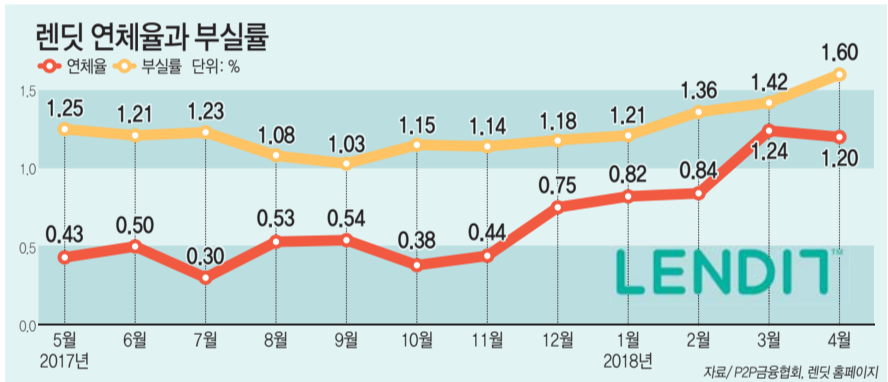
"정교한 신용평가모델, 투명한 정보제공, 이제는 투자자가 효율적으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년째 개인신용 대출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있다. '렌딧'은 소신 있는 P2P 경영으로 대출자와 투자자에게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곳이다.

시중은행은 금리가 낮지만 대출받기가 어렵고, 저축은행은 금리가 높은 대신 대출은 쉬운 국내 금융시장에 의문을 갖고 P2P금융업에 뛰어든 렌딧의 김성준 대표.

그는 인터뷰 시작에 앞서 "국내 중금리 대출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아 고금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부터 중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P2P금융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의 경영소신은 대출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른 P2P기업들과 달리 한결같이 '개인신용 대출'만을 취급하고 있는 것. 그는 "한 분야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며 "아직까지 다른 분야의 투자 상품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개인신용 대출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렌딧의 누적투자액은 4월 30일 기준 약 1200억원으로 지난해(약 380억원)보다 300% 성장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단순한 성장보다 '성장을 통한 데이터의 정교화'를 렌딧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대출건수가 많다보니 다른 기업보다 신용평가 표본이 많아져 더욱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렌딧의 심사평가모델은 더 정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액 대비 대출자가 (다른 P2P기업에 비해)상대적으로 많다보니 데이터가 더욱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렌딧의 다수채권에 투자된 건수는 630만건으로 P2P금융협회 전체 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다.

연체율과 부실률은 각각 1.24%, 1.42%다. 3월 기준 P2P금융협회에서 공시한 평균 연체율 2.21%, 부실률 2.62%보다 밑도는 수치다.

김 대표는 "대출자의 단순 신용등급이 아니라 금융습관 등을 통해 신용평가를 정교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체율과 부실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출자를 보호하는 것이 곧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3월 30일까지 운영하던 '보험드 서비스'에 이어 5월 중에 또다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6일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한 그는 "협회사와 산업의 본질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협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성에 공감하기 어려워 협회 탈퇴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의 P2P금융가이드와 규제를 철저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렌딧은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하더라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소속은 유지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순익 800억 목표... 복합금융기업으로"

취임 100일 김옥진 애쿠온캐피탈 회장

"올해 순익 803억원 목표, 복합금융기업 만들겠다."

김옥진 애쿠온캐피탈 회장 겸 애쿠온저축은행 이사회 의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애쿠온의 비전과 사업전략,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김옥진 회장은 "지난 100일도 숨가쁘게 달려 왔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정진하겠다"며 "캐피탈과 저축은행의 협업을 통해 고객 맞춤형 복합금융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애쿠온캐피탈은 지난 순이익 755억원을 기록했다. 총자산 약 4조 7000억원 규모다.

김 회장은 "올해 저축은행과의 협업으로 순이익 803억원, 총자산 5조 1000억원

을 달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캐피탈의 입장에서 제공할 수 없던 부분을 저축은행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함께 성장하겠다는 설명이다.

애쿠온은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애쿠온 관계자는 "지역밀착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지점이 운영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비대면으로 지역상공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모바일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